

제4절 기양1리(基陽一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매화천을 건너 매화1리이고 서쪽은 소령산(小靈山) 지맥인 망방산(望邦山)이 마을 뒷산을 이루며, 남쪽은 기양2리, 북쪽은 매화2리다. 마을회관은 2002년에 건립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이다.

2. 마을의 역사

1) 영시골(永示谷)

골이 깊고 산이 높아 한발(旱魃)이 심하여도 개울물이 마르지 않는다고 하여 영시골(永示谷)이라 하였다 한다.

2) 지품(池品)

1658년경에 평산 신씨(平山申氏)가 개척하였다 한다. 1650년 전에는 이 마을 중앙에 있던 큰 지당(池塘)은 매몰되고 서향(西向)의 맞은편 마을은 유실(流失) 폐허되었다. 폐허된 마을주민들이 지당이 매몰되어 평지가 된 이곳으로 이주(移住)하면서 지품(池品)이라 하였다 하며 또 지당 자리에서 우물을 파다가 귀중한 물품이 나왔다 하여 지품이라고 전하고 있다.

3. 가구 분포

총 71세대가 거주하며 울진 장씨(蔚珍張氏), 평해 황씨(平海黃氏), 삼척 김씨(三陟金氏), 인동 장씨(仁同張氏), 남양 홍씨(南陽洪氏), 평산 신씨(平山申氏) 등이 세거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명당묘지(明堂墓地)

경주 양동 이씨(陽洞李氏)가 폐허된 마을에 살 때, 배를 타고 지당(池塘)을 건너가 묘(墓)를 쓰고 경주 양자리(陽子里)로 이주하였는데, 그 후 후손들이 조상묘(祖上墓)를 찾기 위하여 이 마을에 왔으나 마을의 위치가 바뀌어 찾지 못하고 되돌아갔다 한다. 이 묘지는 명당자리라 하여 누구든지 음력 8월에 먼저 벌초(伐草)를 하면 1년 동안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는 이

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2) 성황당지(城隍堂址)

예부터 성황신을 모시고 성황제를 올리던 곳이었으나,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이후 1977년에 미신이라 하여 철폐되고 지금은 어린이 놀이터로 변했다.

제5절 기양2리(基陽二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북쪽은 신흥리, 서쪽은 소령산(小靈山)의 지맥인 망방산(望邦山) 맥이 뒷산이며, 남쪽은 기양3리, 북쪽은 기양1리다. 2013년에 마을회관이 신·개축되었으며 경로당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

2. 마을의 역사

1) 영양(影良·永陽)

1670년경에 전주 이씨(全州李氏)인 태영(泰英)과 인동 장씨(仁同張氏)인 중생(重生)이 같이 살면서 연양(軟陽)이라 하다가 마을이 늘 양지가 들어 따뜻하다 하여 영양(永陽)이라 하였다 한다.

2) 옹기점(甕器店)

1600년경에 김씨(金氏) 성(姓)을 가진 사람이 이곳에 살면서 토질(土質)이 옹기 굽기에 적합하여 옹기를 만들어 생활을 이어갔다 하여 옹기점이라 하였다 한다.

3) 와수골(瓦水谷)

이 마을을 개척한 이태영(李泰英)이라는 사람이 이 골에서 기와를 만들었다 하여 와수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4) 회골(灰谷)

옛날 이 골에서 회(灰)를 만들었다 하여 회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